

길림화학섬유그룹, 40만톤 탄소섬유 프로젝트 건설 다그친다

프로젝트 올해 연말까지 60% 완수, 2026년까지 전부 완성 예정



올해는 길림화학섬유그룹이 준공되어 생산에 투입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 일류의 '정정특신' (专精特新) 시범 기업을 건설하고 세계급 탄소섬유산업기지 건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로징에서의 길림화학섬유그룹의 새로운 목표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길림화학섬유그룹은 40만톤 탄소섬유 전반 산업사슬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신소재를 대표로 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은 한창 길림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에너지로 되고 있다. 길림성의 신소재 선두기업으로서 길림화학섬유그룹은 전반 산업사슬의 대체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다.

40만톤 탄소섬유 전반 산업사슬 프로젝트는 길림화학섬유그룹이 글로벌 탄소섬유산업에서의 선두적 지위를 구축하고 공고히 하는 중대한 프로젝트로 총 투자금액은 185억이며 12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여러 프로젝트가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자들은 '고성능', 'T800', '신질생산력' 등과 같은 새로운 전문 용어를 자주 입에 올린다. 심오하게 들리는 이 단어들이 바로 탄소섬유산업이 프로젝트 건설과 함께 부단히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핵심 단어들이다.

고성능 탄소섬유 원사 (原丝) 3만톤 프로젝트는 혁신을 주도로 하는 첨단화 및 산업사슬 일체화의 핵심 프로젝트중 하나이다.

총 투자 27억 4,000만원인 이 프로젝트는 길림화학섬유그룹이 고기능, 고부가가치의 T 700 급 원사를 연구

개발하는 데 더욱 강력한 지지를 주게 된다. 또한 길림화학섬유그룹이 T800, T1000 급 고기능 지표를 돌파하는 중대한 조치가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4월에 시험 운영을 시작, 연말전으로 두개의 생산라인을 잇달아 개설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3만톤 고기능 원사 프로젝트가 길림화학섬유그룹의 고유의 습식 2단계 원사 생산기술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5년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자주적으로 개발한 건식 분무 습식 기술이라는 점이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길림화학섬유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건·습식 방직 이중로선 (干、湿法纺丝双路线)의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될 것이다.

"년말까지 길림화학섬유그룹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은 6만톤에 달하게

되는데 브랜드와 품종 면에서 전반 분야를 포괄하게 되며 말단 제품의 포괄면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길림화학섬유그룹 손소군 부총경리는 말했다.

원사와 탄화 (碳化) 생산능력이 신속히 제고됨에 따라 말단 응용 분야에 산업사슬을 연장하는 것은 길림화학섬유그룹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었다.

지난해 길림화학섬유그룹은 탄소섬유 복합자재 응용 분야에 주력했는데 풍력발전 분야에서는 탄소섬유 압출보드 (拉挤板)를 대규모로 생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급상승했고 탄소섬유직포 (织布)와 탄소조립체 등 범용 복합자재의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에 달했다.

"전반 산업사슬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또 하위 (下游) 복합자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올해는 복합자재 제품



과 자동차 경량화 방법의 투입 강도를 계속 늘려 탄소섬유 전반 산업의 일체 화사슬과 보완사슬, 강화사슬 건설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길림화학섬유그룹 부총경리 악복승의 말이다.

길림화학섬유그룹은 이미 자동차경량화연구개발센터를 건설했다. 그 뒤를 이어 또 국내 상, 하위 (上下游) 기업, 과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과학연구혁신을 전개, 지속적으로 대형 풍력발전 날개 세트를 개발하여 우리 성의 '육지풍광삼합' 원료기지를 조성하게 된다.

일전, 탄소섬유 복합자재 보조제 제품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서서히 길림화학섬유그룹 대문을 나갔다. 보조제 역할을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 이런 보조제가 없다면 산업사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40만톤 탄소섬유 전반 산업사슬의 보조 프로젝트로서 길림화학섬유그룹은 6.5만톤 탄소섬유 보조제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했는데 주요하게 유제 (油剂), 보조제, 접착제 3대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3만 5,000톤의 탄소섬유 수지 (树脂) 보조제 생산라인을 가동, 길림화학섬유그룹의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강사, 상해 등지에도 판매되어 시장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길림화학섬유그룹은 이전에 수입 원사 유제를 사용했는데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물이 일단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반 산업사슬의 생산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1월 18일에는 유제 생산라인이 생산에 투입되면서 성공적으로 수입 제품을 대체, 탄소섬유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보장했다.

올해 길림화학섬유그룹은 제1 자동차그룹, 우주항공과학공업 등 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여 자동차 경량화, 항공우주, 풍력발전, 스포츠 레저 등 탄소섬유 응용 분야를 확대했다. 아울러 많은 탄소섬유 하위 제품 생산기업을 유지하여 천억급 탄소섬유산업집군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길림화학섬유그룹의 40만톤 전반 산업 체인 프로젝트는 40%가 완성되었고 올해 연말이면 60% 완성되며 2026년에 전부 완성되는데 이는 새로운 경주로에서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게 된다. / 강성일보

우리 농산물 최고예요...

서란 촌주재 제1 서기들 농산물 판촉에 열성



서란시 촌주재 제1 서기들이 서란 쌀과 거위 등 자기 마을 농산물 판촉활동에 나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일전 길림시 북산공원 인민광장의 대형 농산물 전시구역이 시민들의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이곳에서 서란시에서 온 40여명의 촌주재 간부들이 농산물 판촉활동을 펼쳤다.

전시부스에는 서란임쌀, 훈제거위, 삼도량 (三稻梁) 백주, 랑갑산 (亮甲山) 전병, 팔리촌 (八里村) 곰보버섯, 설가촌 (薛家村) 거위알 등 특색 농산물이 다양하고 가지런하게 진열돼있었다.

자기 마을 특색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판촉원으로 변한 촌주재 서기들의 열정적인 소개에 오가던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전시부스에 몰려 물건 구매에 열을 올렸다.

전시판매 구역외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바로 거위 게임 구역이었다.

귀여운 거위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임 현장에서 사람들은 거위를 겨냥하여 고리를 던진다. 성공하면 거위를 안아갈 수 있다. 게임에

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원들은 아름다운 거위 테마 제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이번 활동은 아주 참신했습니다. 활동을 통해 우리는 서란시의 거위 산업에 대해 료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란시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길림 시민 교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 밖에 서란시의 계란껍질조각 및 전시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든 전통 공예품을 시민들에게 선물했다.

주최측 직원들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5,000여장의 전단지들을 나눠 주며 서란시의 자연풍경, 특색민박, 농촌음식 등 농촌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였다.

서란시촌주재제1서기협회 회장 양하연은 행사를 통해 "서란시의 거위산업, 거위문화를 더욱 잘 알릴 수 있었고 거위 사양이 농촌을 발전시키고 촌민들을 부유하게 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되도록 추진했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농산물 판매액은 2만 6,000여원에 달했다. / 신화사

화전시 1월—4월 공업경제운행 안정세



화전시는 년초부터 '아홉가지 해결, 한가지 조율' (九解一协调) 기업 봉사 활동을 펼쳐 전력을 다해 공업 운영을 안정시키고 기업에 대한 봉사를 최적화하여 중점기업의 안정적 생산과 증산을 보장하고 있다. 1월—4월 화전시의 규모이상 공업총생산액은 14억 600만원으로 동기 대비 22.9% 성장하면서 공업경제의 운영은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점 프로젝트의 질과 량이 안정적으로 증가되면서 규모 공업 생산액의 성장에 유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화전화금회사 정제공장과 적봉 (赤峰) 황금 등 기업이 안정적인 협력을 이루도록 추동하고 구매 능력을 적극 향상시켜 1월—4월 동기 대비 146.6% 성장한, 생산액 2.7억 원을 완수하면서 공업경제 생산액을 13.1% 포인트 이끌었다. 백산발전소는 송전망 전기 요금 가격을 조절, 1월—4월 동기 대비 64.5% 성장한 2억 9,600만원을 완수하면서 공업 생산액 증속을 7.8% 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연간 생산액이 8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채 (出彩) 농업, 길원식품, 금우목축업 등 중점 식품기업들은 생산운영을 극대화하여 비수기 판매량 감소의 영향을 줄였는데 1월—4월 식품산업의 생산액 2.41억 원을 완수하여 동기 대비 18.8% 성장했다.

프로젝트 개조와 기업 육성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전시는 전력을 다해 프로젝트 규모화 업그레이드를 잘 틀어쥐었다.

현재 길량강대 (吉粮江大) 회사

는 생산액 2,000만 원을 실현하였고 길원식품회사는 한창 제품의 조제법 (配方) 조절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락복식품회사 프로젝트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3분기에 규모화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윤과학기술회사는 시장 주문을 적극 상담하고 있는데 연말전으로 규모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화전시는 홍박물리브덴광산 (鸿博锂矿)이 조속히 검수를 마치고 생산에 투입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다. 이는 공업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과 효과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지원사업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기업의 융자 경로 확장을 도왔다.

년초부터 화전시공업정보화국은 길림시금융서비스유한회사와 길림시 교통은행, 포발 (浦发) 은행, 흥업은행 등 금융기구들을 적극 요청하여 화전시의 기업—은행 연결 (对接) 활동에 참가하게 했다.

지금까지 전 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 수요를 3차례 해결해주고 은행—기업 연결 활동을 5차례 펼쳐 길원토산품 등 3개 기업에 4,641만원의 융자를 제공하고 원방기계, 출채농업 등 4개 기업이 3.88억원의 의향 대출을 체결하도록 추동했다. 아울러 길림성농업을 자담보회사와 조물하여 횡도하자 황도 (黄桃) 재배기지를 위해 150만원의 담보 대출 의향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 중신넷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회원들 강빈공원에서 날리리 ~

5월 28일, 아름다운 길림시 송화강변 강빈공원에서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야외회 및 문예공연 행사가 펼쳐졌다.

오전 8시 30분, 한복과 정장을 차려입은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회원들은 먼저 강빈공원을 한바퀴 돌며 구경도 하고 사진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어서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철합금분회 기악 연주로 시작된 문예공연은 로3기분회의 무용〈붉은 해 변강 비추네〉, 선영분회의 무용〈연변 날리리〉, 민들레분회의 녀성소합창 등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17개 분회의 회원들이 년초부

터 준비해온 15개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선보였다.

문예공연의 총지휘를 맡은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황정에 부회장에 따르면 이번 강빈공원 야외회 및 문예공연 행사는 자연 속에서 회원들의 심신건강을 도모하고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는 현재 460여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길림시 최대 조선족 민간단체로서 산하에 22개 분회를 두고 있으며 회장 박흥기, 부회장 김덕하, 황정애, 황성기로 임원진을 무어 협회를 이끌고 있다. / 문장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